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신응수

“어명이요~, 한반도의 산야에 소나무를 심으시오”



지난 4월 5일 식목일 강원도 양양에 산불이 나자 ‘대한민국’의 마음이 편치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물난리 불벼락이 10년째 계속되는 통에 몸서리를 쳤고, 급기야 화마가 천년고찰 낙산사마저 집어삼켜버리자 안타까운 마음은 온 국민들에게 번져갔다. 최근 목수로서 그간 경험하고 깨쳐온 내용을 담은 《목수》(열림원)를 낸 신응수(63·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씨에게도 강원도 산불은 그 무엇보다 가슴 아픈 소식이었다. 목수로서 “저 홀로 쓸쓸히 죽어간 나무를 보는 것보다 더 서글픈 일”이 없는데 산이 통제로 불타버리다니, 주민들의 마음이 터진과 함께 타들어갔다면 신씨의 마음은 소나무들과 함께 타들어갔다. 열여섯 살에 목수의 길로 들어선 뒤로 고건축과 함께 한 그에게 소나무는 바로 자신이었다.

“당시 제재소가 있는 강릉에 있었습니다. 《목수》에 소개하기도 한 마근 스님과 저녁을 먹고 난 후 산불소식을 들었죠. 양양의 소나무들은 주로 수령 2,30년 이상 된 것들로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한참 자라기 시작할 청소년과 같죠. 우림목재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작업중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일렀지만 그렇다고 불에 탄 소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겠지요.”

더군다나 이번 산불이 걷잡을 수 없게 변진 게 침엽수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신씨의 마음을 더욱 타들어가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산불에 솔잎혹파리에 치사율 100퍼센트의 소나무 재선충까지 전국의 소나무가 사라져가는데 침엽수 때문에 산불이 더 커져 앞으로는 활엽수를 심어야 한다니….

“산불은 처음부터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나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니. 도둑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보석을 집에 두면 도둑맞을 염려가 있으니 아예 두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를 바 있어요.”

소나무는 쉽게 부러지지 않아… ‘춘양목’이 그 중 으뜸 소나무의 가치는 단적으로 목재의 구분에서 드러난다. 목재의 수량을 잴 때 ‘소나무 몇 m³’, ‘잡목 몇 m³’라고 말한다. 소나무 외에 모든 수종은 잡목에 속하는 것이다. 실제로 낙엽송은 병충해에 강해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에 비해 막상 키워놓으면 쓸모가 적다. 참나무의 경우 옛날에야 굴피집의 재료(굴참나무)로 쓰이거나 열매인 도토리도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지만 나무 자체는 싼값에 숯공장이나 펄프공장으로 팔려가는 게 고작이다(물



한반도 산야에 소나무를 심는 것은 단지 목재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론 이것은 목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는 말이다. 아무리 소나무가 보석이라고 해도 소나무에서 도토리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수량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수입송을 쓰기는 하지만 고건축을 복원하거나 지을 때 소나무만한 것이 없다.

“소나무는 쪼개보면 직결이 아니어서 터지는 율이 적고 송진은 나무를 질기게 하고 부패를 막아줍니다. 또한 험한 환경에서 더디게 자란 소나무는 나이테가 좁고 단단하고 또한 구부러지지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부터 광산에서 갱목으로 소나무를 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딱 부러지지 않고 천천히 구부러져 소나무가 얼마만큼 힘을 받고 있고, 현재 얼마만큼 위험한지 눈으로 볼 수 있었지요.”

소나무 중에서 으뜸은 적송, 즉 춘양목이다. 적송은 강원도 양양에서 경북 울진에 이르는 태백산맥 줄기에서만 자란다. 추운 지방의 높은 바위산에서 자라다보니 소나무의 장점이 극대화됐다. 하지만 일반 소나무인 육송마저 구하기 힘든 현실에 적송은 거의 멸종단계다. 그렇다고 적송을 일부러 키울 수도 없다. 신씨는 산삼과 인삼이 다른 이유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춘양목으로 집을 짓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적송으로 지은 건물은 고 이병철 회장이 사용하던 이태원의 승지원, 충북 단양의 구인사 대조사전, 청와대 상춘대, 대통령 관저 등 손에 꼽을 정도죠.”

인세, '솔바람모임'에 전액 기증... '구송(楡松)운동' 펼쳐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야 적송을 쓸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구하기 힘들어 값이 오른 것이 사실이다. 보통 소나무 가격은 m²당 180만 원이지만 300년 된 춘양목은 2,500만 원 가까이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건축재로 쓸 만한 150년 이상의 춘양목을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나무가 나는 시기가 있고 아무 때나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운이 맞지 않으면 천만금을 쥐도 구할 수 없는 게 적송이다.

신씨는 이번에 《목수》라는 책을 내면서 인세 등의 수익금을 전영우 씨가 대표로 있는 '솔바람모임(solbaram.or.kr)'에 전액 기증했다. 솔바람모임은 우리 문화에 자리잡은 소나무의 역할, 우리 정신에 자리잡은 소나무의 상징, 우리 심성에 자리잡은 소나무의 정서, 그리고 우리 삶에 자리잡은 소나무의 가치를 함께 계발하고 공

유하는 한편, 이 땅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소나무를 지키자는 뜻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소나무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는 문화예술계 100인 긴급동의를 발의하고, 100만인 서명을 받는 등 본격적인 '구송(楡松)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증은 신씨가 그동안 수많은 소나무를 베어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은 마음에서이기도 하고, 좋은 소나무가 점점 없어져가는 현실에서 느낀 위기감 때문이기도 하다.

몸에 밴 소나무의 고독, 소나무의 정신

“저로서 가장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목수가 믿을 것은 갈고 닦은 기술과 손 같은 연장과 믿음직한 나무밖에 없습니다. 좋은 집짓기의 반은 좋은 나무 구하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죠. 저는 비록 나무를 베어 쓰는 목수지만 소중하게 가꾸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이 베어 쓸 나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신씨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정선군과 강릉에 소나무가 산재한 임야 42만 평을 구해 관리하고 있다. 그 임야는 소나무를 베어 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소나무를 기르기만 할 생각으로 구입한 것이다. 생전에 베지 않고 몇 백 년 아름다리 소나무로 기르고 싶은 게 신씨의 마음이다.

대목장 신영수 씨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무를 찾아 고건축 현장을 찾아 한시도 머물지 못한 탓이기도 하고, 장인으로서 속된 세상과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책을 낼 때마다 편집자들과 갈등하기도 한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목수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정감이 아니라 톱밥 날리는 현장의 거친 숨소리고, '정신' 없는 건축주와 행정가와의 갈등이다.

“어명ियो. 어명ियो.” 큰 나무를 베기 전, 궁궐을 복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알리기 위해 목수가 소나무에게 외치는 말이라고 한다. 이는 나무를 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을 나무에게 알려 나무의 원혼을 달래주려 했던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어명ियो. 어명ियो.” 신씨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한반도의 산야에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소나무를 심는 것은 단지 목재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

취재_신동섭기자 | 사진_박신우기자